# 부산불교교육대, 위령재 · 캠페인 열어

**코로나 · 자살 등 사망자 위령대재**
**자살 · 교통사고 없는 부산만들기**
**연탄 1만장 아시아 공동체학교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1월 2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서면문화로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11월 2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서면문화로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위령대재 및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전 세계인의 넋을 위로하고 자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해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화엄승가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서해 흥교 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화엄승가회를 비롯해 화엄승가회 소속 27개 사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학생회, 부산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회,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등 민관교계 9개 단체가 동참했다.

캠페인에는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소속 스님들과 장준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 권혁란 부학장, 서병수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등 동참 단체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1부 합동천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수자 스님들과 화엄승가회 스님들이 전통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내빈들과 불자들은 불단에 헌화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아울러 부산불교교육대학 수어반이 동참해 수어 위령가를 선보였다.

2부 기념식은 △삼귀의 △발원문 △내빈 및 참여단체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법문 등이 이어졌으며 자비연탄나눔 전달식 및 부산불교교육대학 전법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자비의 연탄 1만 장을 아시아공동체학교에 전달했으며, 신만주 부산불교교육대학 31기 회장이 전법대상을 수상했다.

3부에서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일대와 부전시장 주변을 행진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피케팅에는 '괜찮니? 손잡아 줄게'라는 문구를 담았으며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수칙'과 '자살예견신호 및 대처방법'이 담긴 전단지 5000여 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서해 흥교 대종사는 "불교는 지혜의 바다, 법해(法海)이다. 생의 집착은 근본이 번뇌이며 어두움이다. 어두운 세상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아침 해와 같이 넘쳐나는 지혜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득 찬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오늘 캠페인으로 자살과 교통사고 등 악재들을 막을 순 없지만 내 주위의 단 한사람이라도 지킨다는 각오로 오늘 캠페인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종식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부산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부산이 자살과 교통사고가 사라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를 발원한다"며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캠페인과 위령대재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 스님들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 부산에 희망을 심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해 40년 동안 1만 6000여 명의 졸업생과 1200여 명의 조계종 포교사 및 100여 명의 출가자를 배출했다.

## 민추본 부산경남본부, '평화통일특강'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관)가 11월 25일 부산 원오사에서 '민추본 부산경남본부 평화통일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남북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남북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경제가 남북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와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협력을 통한 서로의 강점을 연구해 남북 경제협력으로 통일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포교사단 부산 '자비의 동계 용품 나누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11월 27일 부산 개금 철로변 마을에서 '자비의 동계용품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분남 단장과 류강렬 관장을 비롯해 포교사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연탄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연탄은 20세대에 각 50장 총 1000장이며 겨울이불 20세트가 전달됐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매년 이불 및 연탄 등 겨울 동계용품을 소외 이웃을 위해 전달하고 있다. 자비나눔 용품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소속된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했으며 후원금은 특히 동안거 및 하안거 기간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서 진행하는 경전독송 수행에 동참한 포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모금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소원사, 제1회 황령산 산신재 및 이웃나눔



관음기도도량 소원사(주지 법진)가 11월 28일 경내 산신각에서 '제1회 황령산 산신재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소원사는 산신재에서 코로나19가 소멸하기를 기원했으며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했다.

소원사는 백미 전달을 위해 사찰 인근에 위치한 통장들에게 차상위계층 명단을 요청하고 산신재 당일 차상위계층 20여 명을 초대해 백미 10kg 20포대를 전달했다. 또 남구청에 백미10kg 108포대를 전달해 소외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주지 법진 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사찰이 되어 화합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조계종부산聯,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11월 28일, 1300여명 불제자 수계**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 이하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1월 28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제4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계를 지키고 청정한 삶을 발원하는 불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불교문화 및 의례의 엄숙함과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번 해는 특히 통도사 염불원에서 집전한 신중작법과 천수바라무, 도량결계나비무, 법고무 등으로 전통 도량 결계의식을 보여줘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선보였다.

법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499명만 행사장에 입장했다. 또 참가자를 배려해 1부와 2부로 나눠 행사를 개최했으며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했다. 예정된 수계 동참대중 1300여 명 중 행사장에 동참 못한 대중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했으며 계첩은 소속 사찰에서 받았다.

수계식 전계대화상으로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수불 스님이 법석을 증명했으며, 갈마아사리는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지현 스님이 맡았다. 존증아사리는 심산 스님, 원허 스님, 목종 스님, 도일 스님, 만초 스님, 하림 스님, 지일 스님이 맡았다.

수계의식은 연비 대신 제주도 존자암에서 채수한 관정수로 관정의식을 진행했으며, 불자들은 장궤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수불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비록 선을 행할지라도 끝내 속세의 악업은 소멸시킬 수 없으나 만약 삼귀의계를 받는다면 능히 속세의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다겁생의 죄업장이 계를 받음으로써 소멸되니 빛이 한 번도 미치지 못한 깊은 동굴에 불빛이 비춰 무명의 어둠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참과 같을 것이다"고 법문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오늘 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로 청정한 삶을 살아가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사)나누우리 신임 이사장, 만우 스님 선출



태고종 국제구호 단체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도산)가 11월 24일 통영 보현사 내 나누우리 사무실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만우 스님(밀양 법성사 주지 · 사진), 상임이사에 자우 스님(왕복사 주지)을 선출했다. 만우 스님은 '지역 코로나 방역 봉사와 나눔 활동에 앞장설 것'과 '국제 구호 활동 및 국내 불우 환아 치료비 지원' 등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창원불교聯, 제31회 산해문화상 수상자 발표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1월 22일 '제31차 산해원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문학상에는 이창규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예술상에는 박배덕 서양화가, 언론상에는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 행원상(지역개발)에는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고,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6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드 창원(구 풀만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영축문화재단, '영축문화대상 수상자' 발표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12월 1일 제9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학술문화상 부문에 오경후 동국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봉사실천상 부문은 동국대학교 의료원(단체), 포교원력 부문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대종사추모 다례재 행사 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제4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원만 봉행을 감사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평안을 위한
'제4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3사7증사(3사-전계대화상 수불큰스님, 갈마아사리 수진큰스님, 교수아사리 지현큰스님,
존증아사리-본회 부회장스님)를 모시고 진행한 수계법회에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에 따른 '백신패스' 적용에도 불구하고
질서있게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본회 사부대중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포교의 일선에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무량공덕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